

-기 십상이다

~하기 쉽다 — 좋지 않은 결과

무언가가 잘못되기 쉽다고 경고합니다. 또 하나의 고정된 -기패턴이며, -기 마련이다에서 위로의 느낌을 뺀 짝 표현입니다.

■ 결합 방법

상황	형태	예
모든 동사	-기 십상이다	실수하다 → 실수하기 십상이다
ㄹ어간은 ㄹ유지	-기 십상이다	읽다 → 읽기 십상이다
흔한 형태	-(으)면 ... 십상이다	서두르면 실수하기 십상이다
결과를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음	합격하기 십상이다(×)
띄어쓰기	십상은 명사	실수하기 십상이다
시제를 붙이지 않음	어간에만 붙음	실수했기 십상이다(×)

■ 언제 쓰나요

동사 어간에 -기 십상이다를 붙입니다. 모음 규칙이 없고, ㄹ은 유지되며, 앞에 시제가 오지 않습니다. 십상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

결과는 반드시 바람직하지 않은것이어야 합니다. 이는 선호의 문제가 아니라 의미의 일부입니다. 십상은 실수, 손해, 잘못을 예측합니다. 좋은 결과가 오면 비문이 됩니다.

보통 조건 뒤에 오며, 둘이 합쳐 경고의 뜻이 됩니다: 서두르면 실수하기 십상이에요.

마련이다와 비교하면 차이는 태도입니다. 마련이다는 '누구에게나 있는 일'이라고 위로하고, 십상이다는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 예문

- 1 서두르면 실수하기 십상이에요.
- 2 준비 없이 시작하면 실패하기 십상이다.
- 3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면 잠을 설치기 십상이다.
- 4 급하게 만들면 맛이 없기 십상이에요.
- 5 혼자 결정하면 후회하기 십상입니다.
- 6 메모하지 않으면 잊어버리기 십상이에요.

■ 비교

-기 마련이다

형태는 같지만 태도는 정반대입니다. 마련이다는 누구에게나 일어나는 일이라고 위로하고, 십상이다는 당신에게 일어날 일을 경고합니다.

실수하기 마련이에요. (누구나 실수한다) / 실수하기 십상이에요. (실수하기 쉽다)

-(으)ㄹ 것 같다

것 같다는 좋은 나쁜든 무엇이든 완곡하게 예측합니다. 십상이다는 나쁜 결과만 예측하며 단호하게 말합니다.

늦을 것 같아요. (늦을 것 같다) / 늦기 십상이에요. (늦기 쉽다)

-는 바람에

바람에는 이미 일어난 나쁜 결과를 전하고, 십상이다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결과를 예측합니다.

서두르는 바람에 실수했어요. (서두르다가 실수했다) / 서두르면 실수하기 십상이에요. (서두르면 실수하기 쉽다)

■ 주의

- ✗ 열심히 하면 합격하기 십상이에요.
- 열심히 하면 합격할 거예요.
십상이다는 달갑지 않은 결과를 예측합니다. 좋은 결과라면 일반 미래 표현을 쓰세요.
- ✗ 어제 서둘러서 실수했기 십상이에요.
- 어제 서두르는 바람에 실수했어요.
-기는 시제를 가지지 않으며, 십상이다는 전달이 아니라 예측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이라면 과거 표현을 쓰세요.
- ✗ 서두르면 실수하기십상이에요.
- 서두르면 실수하기 십상이에요.
십상은 명사이므로 띄어 씁니다.